



## ‘오늘에 되살린’ 민족문화의 자산 주제별 구분 통해 옛책 내용 해제

—「알기쉬운 옛책풀이」낸 梁泰鎮씨



“자료수집을 위해  
美국회도서관을 방문한  
적이 있는데 그때 우리  
한서가 중국책으로  
분류된 사실을

확인하고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우리 스스로가 문화자산으로서의 한서를  
얼마나 소홀히 다루었으면 미국 땅에서  
국적을 상실했겠는가 심각하게 반성한거죠.”

최근 한문으로 기록된 우리 고전을  
일반인들이 그 내용의 대강이나 알 수  
있도록 꾸민 「알기쉬운 옛책  
풀이」(법경출판사)를 펴낸 양태진씨(충무처  
정부기록보존서 기록관리과장·51)는 이번  
작업을 통해 ‘우리 것’에 대한 사회의  
관심고조를 기대했다고.

1237종에 달하는 우리 고전을 알기 쉽게  
해제하고 있는 이 책을 통해 “한글 세대들이  
미처 접하지 못했던 옛책의 진가를 흠뻑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는 양태진씨는  
“우리 학문발전의 근원지를 선조들의  
학문업적에서 찾을 수 있다는 자신감도 얻게  
될 것이다”라고 자평.

옛 문헌을 불교·유교·정치  
·법률·경제·  
군사·과학·어문학·  
역사·지리·서지 등 주제별로 구분하고  
이를 다시 가나다順으로 배열, 독자들이  
필요에 따라 손쉽게 해당항목을 참고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배려한 이 책은 특히,  
자연과학 부문에 보다 중점적인 해제를 달고  
있다.

“그간 국학자들의 노력에 의해  
인문·사회부문의 책들이 활발히 소개된 데  
반해 자연과학부문의 책들은 거의 소개되지

않은 현실을 감안했습니다”

한문으로 기록된 원전을 전체적으로  
이해한 후 현대감각에 맞게 요약하는  
‘이중작업’이 남달리 어려웠다는 양태진씨는  
기실 영토사 연구가로 널리 알려진 인물.

“우리 영토의 변화과정을 추적하는  
작업은 바로 민족사의 영육을 되짚는 역사적  
경험이 됩니다. 확장의 역사였다기 보다  
축소의 역사였던 민족의 영토사는 분단된  
우리 민족의 역사적 과제가 무엇인지 전망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지요.”

국내에 영토사를 전공하는 선학이 없어  
각종의 국학자료를 섭렵할 수밖에 없었다는  
양태진씨는 “산더미처럼 쌓인 자료들의  
미로 속에서 이번 책을 만들 수 있는  
기초자료가 작성되었다”고.

“번경사연구를 위해 접했던 수많은  
자료를 다시 도서관으로 ‘수장’시킬 수  
없다는 사명감으로 작업에 임했다”고  
말하는 양태진씨는 지금의 7배가 되었던  
책의 분량이 여건상 많은 부분을 누락시킨  
것이 못내 아쉽다.

“앞으로는 잃어버린 우리 영토를  
역사적으로 재구하는 책을 간행할 예정입니다.  
대마도가 원래 우리 땅이었다는 역사적  
사료를 공개할 것이고, 백두산 정계비  
해석을 둘러싸고 일어났던 비화를 흥미있게  
밝힐 것입니다.” —이권우 기자



## 사상사 배경으로 종교복식사 연구 불·도교 복식의 수용·변화과정 밝혀

—「한국의 종교복식」펴낸 任榮子교수



일반복식과는 달리  
敎祖의 정신이  
상징적으로 담긴  
종교의 복식문제를  
연구한 「한국의

종교복식」(아세아문화사)이라는 이색적인  
책이 출간돼 학계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책의 내용을 암시해 주는 李寅文의  
「儒·佛·仙圖」가 표지그림으로 그려진 이  
책의 저자는 세종대  
任榮子교수(46·의상학과).

“동양사상으로 유·불·도를 꼽습니다만,  
이에 대한 연구는 주로 사상·종교적  
측면에서만 이루어져 왔지요. 제도사적인  
측면이 소홀했던 점을 감안, 도교와  
불교복식을 사상적 배경이나 종교와의  
관련성 하에서 연구하게 됐습니다.”

임교수의 지적대로 불교연구에 있어  
내면적인 사상사 연구에 치중해왔고  
마찬가지로 복식계에서도 복식에 미친  
종교의 영향을 연구한 예는 드물다. 특히  
도교연구는 실증적인 뒷받침이 어려운 탓에  
도교 연구 자체가 전무하다시피 한 형편.

“복식변천사를 밝히기 위해서는  
정신세계나 생활의식 양면에 영향이 컸던  
불교와 도교를 연구하게 되더군요. 유교는  
엄밀한 의미에서 종교가 아니니까  
제외했고요. 조선시대 사대부가 입었던  
道袍만 하더라도 근본적으로  
도복·불복에서 변용된 것으로 종교적  
측면의 연구가 선행되어야만 그 근원을 찾을  
수 있지요. 따라서 도교와 학발의를  
중점적으로 논의했습니다.”

임교수는 우리 불교복식이 인도·중국의  
불교복식에 영향을 받았으면서도 문화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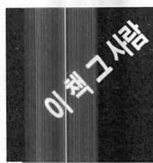
수용과정에서 한국적인 형태로 변화되어  
왔다고 주장하며, 도교와의 상호연관성을  
갖고 정착되었음도 고찰하고 있다. 불교와  
도교의 그 성립배경과 전래과정을 설명하고  
인도불교와 중국불교 복식문화를  
고찰하였다. 한편 불교가 우리나라에 전래된  
삼국시대부터 문헌과 현존유물을 중심으로  
한국불교복식에 관해 연구했다. 도교의  
경우는 단편적으로 문헌에만 나올 뿐이어서  
주로 중국의 백운관의 자료를 통해  
살펴보았다. 또한 이 책은 임교수의 근  
20년간의 연구결과를 모은  
박사학위논문이기도 해서 흥미롭다. 워낙  
미개척 분야에 새로운 문제를 제기한  
논문이어서 논문심사 당시부터 책으로의  
출간을 준비하였다고 한다.

“나 자신이 불교신자이기도 합니다만  
72년에 불교학학회 지도교수를 맡았습니다.  
학생들과 사찰을 순례할 기회가 많았고  
학생들과 서로 각자의 전공적인 시각에서  
보려고 했어요. 이때부터 스님의 옷을  
연구하기 시작했는데, 밀양 표충사에서  
사명대사의 가사·장삼을 보게 되었습니다.  
치수를 측정하고, 제도하고 사진을 찍어두고  
실증적인 조사를 마쳐 복원했습니다.  
이런 하나하나가 내겐 재미있고  
다 논문거리려니 생각하면 흥이 나지요.”  
이 책을 들춰보면 풍부한 자료사진과  
도표를 동원하고 있어 임교수의 발길이  
닿지 않은 사찰이 없을 듯한 인상.  
실제 많은 사찰을 돌며 협조를 받아 연구를  
할 수 있었다고 한다. 그리고 임교수는 이번  
출간물이 새로운 시각과 관점을 제시한  
자신의 첫 시도라며 계속적인 연구를  
다짐한다. —홍현숙 기자



## 컴퓨터 바이러스의 제작·예방법 소개 연습용 프로그램 고안해 실용성 높여

—「컴퓨터 바이러스」펴낸 박명순교수



‘13일의 금요일’은 흔히 심령학적 금기일로 터부시되면서 온갖 공포, 괴기 영화의 그로테스크한 배경을 제공해준다. 그러나 이 묘한 느낌을 주는 날짜와 요일에 ‘바이러스’라는 생물학적 용어가 결합되면, 비명을 지르거나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는 영화관람자 못지 않게 컴퓨터와 관련된 사람들은 식은 땀을 흘린다. ‘에루살렘 바이러스’ 때문이다.

지난해 10월 처음으로 나타난 이 컴퓨터 바이러스에 일단 감염되면 입력된 자료가 없어지거나 엉뚱한 자료가 나오거나 하면 하드디스크가 파괴되기도 한다. 이외에도 국내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추측되는 LBC 바이러스를 비롯, 현재 브레인(Brain) 바이러스, 스톤드(Stoned) 바이러스 등이 전세계적으로 퍼져있어 수많은 컴퓨터 인구의 골머리를 썩이고 있는 실정.

고려대 전산학과 박명순교수(38)가 최근 펴낸 「컴퓨터 바이러스」(紀翰齋)는 그 정의에서부터 종류나 특성, 그리고 실제 바이러스 코드뿐만 아니라 연습용 바이러스 코드까지 수록, 처방 및 예방법의 기본이 되는 바이러스의 실제구성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있어 관계자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컴퓨터 바이러스는 컴퓨터 내부에서 작용하는 하나의 프로그램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개념과 그 프로그램의 특성만 잘 파악하면 오히려 컴퓨터 학습의 발전계기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컴퓨터 바이러스가 처음 대두되었을 때 대부분의 일반 사용자들은 생물학적 바이러스로 오인, 감염된 디스켓을

접촉하기만 해도 큰 일이 나는 줄 알았다고. 브레인 바이러스를 직접 체험하기도 했던 그는, 자신이 가르치고 있는 학생들에게 강의 내용을 실제 응용시켜보기도 할겸 4명의 학생들과 함께 지난 겨울방학을 꼬박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을 짜는데 바쳤다고 한다.

“이 책에는 8개의 바이러스 코드 제작방법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 소스 프로그램은 바이러스에 대처하기 위한 연구용이므로 다른 의도로 악용되는 일은 없었으면 합니다.”

두 동생과 처남까지 모두 전산학과 교수이기도 한 그는, 처음에는 전자공학을 전공했다. 당시만 해도 컴퓨터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낮아 컴퓨터공학과가 설치된 학교가 거의 없었다고. 그러나 자신의 성격상 “책상머리에 앉아 머리싸움하는 것”이 맞을 것 같아 컴퓨터와 인연을 맺게 되었다고 한다.

요즈음의 어린이 컴퓨터 교육이 결과적으로 오락용으로 ‘전락’되고 있는 반면, 기성세대들은 “새로운 것에 대한 거부감, 두려움으로” 배우기를 꺼려하는 대조적인 현상이 심각한 세대간의 단절을 가져오는 한 요인이 될 수도 있다고 우려하는 그는, “많은 사람들이 컴퓨터에서 나오는 정보는 모두 완벽한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불완전한 인간에 의해 자료가 입력되기 때문에 실수는 물론, 컴퓨터 바이러스라는 ‘범죄’까지 저질러지고 있다”면서 “진리와의 아작도 먼 거리”를 강조한다.

— 정소연 기자



## 책으로 일구는 등산문화의 건강성 「세계산악명저선」 등 시리즈로 펴내

— 산악도서의 新名門 수문출판사 이수용사장



우리나라의 등산인구는 무려 400만명에 이른다고 한다. 통계수치로 따지자면 그들을 대상으로 하는

산악도서 전문출판사는 차별이어야 당연하지 않을까. 그런데도 만년적자의 늪에서 발을 빼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등산문화가 ‘책’과는 무관하게 형성돼 있는데 그 이유가 있을 것이다.

제작년 출판등록을 마치고 국내의 몇 안되는 수령속 산악전문출판사의 세계로 투신한 경영인이 있어 우리의 산악출판 문화계를 탄탄히 하고 있다. 「세계산악명저선」을 비롯한 등반기 등을 꾸준히 펴내고 있는 이수용씨(46 수문출판사 대표·)가 장본인.

“신구문화사에서 18년 동안 잔뼈가 굵었어요. 건강 때문에 그만 두었지만. 그 뒤에 가구점을 하면서 건강도 경제적인 여력도 생기자 보니 돌아오고 싶더군요. 그래서 87년에 등록규제조치가 풀리자마자 등록했는데, 문제가 생겨 1년뒤에 시작하게 되었죠.”

얼마전 작고한 이종익(신구문화사) 사장과 가끔 산행을 했는데 사실 출판에 대한 미련은 “대학보다 출판사의 사회적 기여도가 크다는 그분의 가르침 때문이었어요”라고 말하는 그가 산책을 고집하는 이유는 스마이드의 「산과 인생」을 접하고서다.

지금도 현 책방을 뒤져 가까운 이에게 권한다는 그는 전문장서가다. ‘사재기’식의 장서가 아닌 필요한 책을 고를 줄 안다는 의미.

현책방을 화장실 드나들듯 하던 그는 삼선교에 있는 고서점에서 1936년에 조선일보가 민족정신 고취의 취지에서 마련한 백두산 근찰의 탐험기를 찾게 된다. 지질학자, 식물학자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백두산 근찰을 당시의 주필인 서춘이 연재한 것. “조선일보 자료실에서 마이크로필름으로 보관된 자료를 한 달 동안이나 복사도 하고 하면서 정리했는데, 사진을 구할 길이 없어서 그 탐험에 참가하신 유달영 박사의 도움을 받아 「아아! 천지여」란 책을 냈습니다”라는 그는 마치 자신이 백두산의 정상에서 천지에 발을 담그기라도 한 것 같은 표정이다.

“외국에는 영국의 ‘듀톤’, 프랑스의 ‘아톡’, 일본의 ‘산과 계곡’ 등 글지의 산악전문출판사가 많아요. 겸업하고 있는 가구점의 이익금으로 지탱하다시피 하는 형편이지만, 꾸준히 할 생각입니다.”

인건비조차 떨어지지 않는 부실한(?) 경영을 하면서도 앞으로는 산악서적뿐만 아니라 공해문제를 다룬 책과 함께 산을 주제로 한 음악이나 미술에 대한 책도 내고 싶단다.

전문필자의 부족과 적은 시장규모를 감수하면서도 ‘외도’를 할수 없다는 사명감과 어린시절 빗소리, 흥물물 소리가 들리는 전후의 천막학교에서 빠져서 느끼던 책에 대한 고마움과 귀중함을 끝내 지키려는 그의 의지를 ‘산사람의 의리’라고 생각하면 어떨까.

— 최태원 기자